인문연구 제97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1. Vol. 97, No. 1, pp.21~54
http://dx.doi.org/10.21211/JHUM.97.2

1930년대 역사문학론의 관점에서 본 사화와 야담, 역사소설의 거리

강미정*

〈차 례〉

1. 서론
2. 역사문학론의 형성 배경과 1930년대 역사문학론
   2.1. 역사문학론 형성 배경
   2.2. 1930년대 역사문학론의 본질
3. 역사문학 양식으로서의 사화와 야담, 역사소설
   3.1. 역사문학으로서의 사화와 야담
   3.2. 사화와 야담, 역사소설의 거리
4.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일제강점기 역사문학론의 형성 배경과 본질을 살펴보고, 이 시대 대표적인 역사문학 서사양식이었던 사화와 야담, 역사소설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출발했다.

*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강사

역사문학론은 역사와 문학의 관계를 전제로 하며, 역사적 제재를 어떻게 형상화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일제강점기 역사문학은 1920년대 역사교육의 부재와 민족의식 각성을 위한 역사의 대중화를 위한 차원에서 '전설', '사화', '야담'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이 시기부터 '역사소설'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1930년대에 이르러 이들 양식을 포괄한 '역사문학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1930년대 역사문학론은 역사적 제재를 대상으로 한 문학작품을 뜻하는 개념으로 쓰였으며,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기담화', '왜곡'하는 현상을 비판하고 '역사적 진실'을 구현하는 작품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갖추고 있다. 이때 언급된 '역사적 진실'은 '사실(史實)' 그 자체가 아니라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역사적 현실생활'을 의미한다. 즉, 역사문학은 역사 자체는 아니지만 그 자체가 사실이나 역사의식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역사문학론 전개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된 것은 사화와 야담, 역사소설의 관계이다. 사화는 역사적 제재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 독서물을 의미하며, 야담은 민간전승의 이야기를 구연자를 전제로 각색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역사소설은 소설로서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김동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야사담', '야담', '역사소설'의 경계가 늘 명료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서사양식상 사화, 야담, 소설 등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역사문학의 범주에서 '사실과 역사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주체 의식이 필요하며, 문학이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은 역사문학론자나 작가들이 공유했던 의식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 역사문학, 사화, 야담, 역사소설, 역사의식

1. 서론

역사문학이란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제재로 삼은 문학작품을 말한다. 이 용어는 문학 이론뿐만 아니라 문학사전에도 등재되지 않은 용어이나, 1930년대 문학 비평이나 조선학 연구 차원에서 일부의 평론가가 '역사문학의 필요성'을 제기한 적이 있고, 장르론의 차원에서 '역사소설', '역사동화', '역사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다수의 연구도 존재한다. 그러나 연구자에 따라 이들 장르에 대한 개념 규정이나 범주 설정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장르를 포괄한 '역사문학'의 개념이나 성격, 범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역사문학이란 무엇인가? 이와 관련된 1930년대 논의는 『조선일보』 1937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6회에 걸쳐 연재된 「문학상의 역사적 제재」, 『동아일보』 1937년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4회에 걸쳐 연재된 「역사문학 재인식의 필요」라는 한식(韓植)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전자의 논제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그가 사용한 '역사문학'은 문학상의 제재를 역사 자료에서 취한 작품을 의미하며, 역사적 진실을 문학 속에 담아 역사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사문학의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문학론은 역사와 문학의 관계를 전제로 하며, 역사적 제재를 어떻게 형상화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역사와 문학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형상화의 거리를 의미하며, 그것을 형상화하는 방법은 어떤 양식으로 그려내는가를 의미한다. 즉 전자는 역사의식과 문학의 효능이 주요 논점인 셈이며, 후자는 일종의 역사적 제재를 형상화한 문학 장르를 논제로 삼는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역사소설', '역사극'과 같이 역사와 문학의 관계를 전제로 한 다수의 연구에서 항상 고민해 왔던 문제이다. 특히 역사소설과 관련한 연구는 1980년대 한국 근대 역사소설

형성과 특징에 대한 연구를[1] 비롯하여, 1990년대에는 근대와 일제 강점기,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조선 후기의 역사소설에 대한 연구 등이[2]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일제강점기 개별 작가나 임진왜란과 같은 특정 사건을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3]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또 한편으로 '역사극'에 대한 연구는 중국의 역사극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한국 역사극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중국 원대 유행했던 역사극이나 중국 현대 작가 궈모로(郭沫若) 등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4] 한국의 역사문학 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후자는 한국 역사극의 형성을

---

1) 송백헌, 「한국 근대 역사소설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1982; 김치홍,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사적 연구」, 명지대 박사논문, 1987; 홍성암, 「歷史小說의 史的 考察 – 形成過程을 中心으로」, 『한양어문연구』4, 한양어문학회, 1986, pp.167-221; 홍성암, 「한국 근대 역사소설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88.

2) 박종홍, 「일제강점기 한국 역사소설 연구 – 작가의 역사인식과 사실반영을 중심으로 –」, 경북대 박사논문, 1991; 문철주, 「한국 근대 역사소설 연구」, 동아대 박사논문, 1993; 전경운,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서사 특성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1996; 권혁래, 「조선후기 역사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8.

3) 공임순,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장르론적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2000; 김지연, 「구활자본 역사영웅소설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2002 ; 권영기, 「한일 근대 역사소설 비교 연구 – 초기 역사소설을 중심으로–」, 동덕여대 박사논문, 2003; 임옥규, 「북한 역사소설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2005; 김병길, 「한국 근대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기원과 계보」, 연세대 박사논문, 2006; 이승윤,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형성과 전개 – 매체를 통한 역사담론의 생산과 근대적 역사소설 양식에 관한 통시적 고찰」, 연세대 박사논문, 2006; 이재홍,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번역필사본 중국 역사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08; 이재용, 「이광수와 김동인의 역사소설 연구」, 인하대 박사논문, 2013; 신승호, 「일제강점기 구활자본 역사소설 연구 – 임진왜란 배경 작품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2021.

4) 이상우, 「원대 역사극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1998; 손희주, 「郭沫若의 1940년대 歷史劇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5.

대상으로 하여 넓은 의미의 역사문학론과 관련을 맺는 것으로[5] 볼 수 있다. 그 이외에 '역사동화'에 대한 연구에서도 역사와 동화의 관계를 전제로 한 논의가[6]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역사문학과 관련한 장르별 연구 성과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역사문학론의 본질에 해당하는 '역사의식과 문학의 효능', '역사적 제재를 형상화한 문학 장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총합적으로 다룬 성과는 아직 미진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 역사문학론의 형성 배경과 1930년대 역사문학론의 본질을 살펴보고, 이 시대 대표적인 역사문학 서사양식으로 인식되었던 사화 또는 야담과 역사소설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둔다.

2. 역사문학론의 형성 배경과 1930년대 역사문학론

2.1. 역사문학론 형성 배경

역사문학은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문학의 제재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역사문학은 본질적으로 역사와 문학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서 출발한다. 엄밀히 말하면 이 문제는 근대 이전의 문학론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제현이 〈역옹패설 후집 서〉에서, 전집(前集)의 마무리가 골계(滑稽)로 끝났으며 후집(後集)에서도 경사(經史)보다 장구(章口)를 다듬어 꾸몄으므로 선비가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힐문에 "무료함과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 붓 가는 대로 기록한 것"으로 "장구를 다듬어 꾸미는 것이 장기와 바둑놀음보다 낫고 내용이 그렇지 않다면 패설(稗說)

5) 양근애, 「한국 역사극의 형성과 재현의 문화정치」, 서울대 박사논문, 2016.
6) 이윤희, 「한국 역사동화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2003; 김태호, 「일제강점기 역사동화」, 『아동문학평론』44, 아동문학평론사, 2019, pp.33-39.

이라고 이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7]이나, 조선중기 조신(曺伸)이 편찬한 『소문쇄록(謏聞瑣錄)』에서 "조야의 여러 기록에 간간히 희학(戱謔)과 전인의 음풍농월에 일자일언이라도 특이한 것이 있으면 자잘한 논평과 졸렬한 말을 덧붙여 쇄록(瑣錄)이라고 했다."[8]는 표현에서 '패설', '쇄록' 등에서도 역사적 사실(史實)과 문학적 변용의 관계에 대한 선인들의 고심을 엿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1862년경 유재건(劉在健)이 편찬한 인물서사집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의 '의례(義例)'[9]나 1869년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동야휘집(東野彙集)』의 '서문'[10] 등에서도 이향(里鄕)의 인물이 전해지지 않는 안타까움과 역사책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패관야승'을 기록하는 이유 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전통적인 패관문학이나 야사(野史)·야담류 등의 서적에서 경사(經史) 위주의 학문과 달리 인물과 사적, 풍속 등의 이야기가 갖는 가치를 논한 경우가 많다.

역사와 문학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근대에 이르러 좀 더 활발하

---

7)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익재집』Ⅱ, 평화당인쇄주식회사, 1980, p.133. 客謂櫟翁曰 子之前所錄 述祖宗世界之遠名 公卿言行頗亦載其間 而乃以滑稽之語終焉. 後所錄其出八經史者 無幾餘 皆雕篆章句而已 何其無特操也 豈端士壯夫所宜爲也. 答曰 坎坎擊鼓列於風屢舞婆娑編乎雅矧此錄也. 本以驅除閑悶信筆而爲之者何怪 夫其有戱論也. 夫子以博奕者爲賢於無所用心 雕篆章句比諸傳博奕不猶猶乎 且不如是不名爲稗說也. 仲思序.

8) 조신 원작·정용수 번역, 『국역 소문쇄록』, 국학자료원, 1997, pp.10-11.

9) 유재건 지음·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번역, 『이향견문록』, 글항아리, 2008, pp.40-41. 이 '의례'에서는 "이향에서 어질고 착하다 칭할 자가 예로부터 어찌 그 한정이 있으랴마는 많은 자들이 인몰되어 전함이 없으니 가슴 아프고 애석하지 않은가? 이에 본 바를 모아 10권으로 엮는다."라고 하였다.

10) 이병찬, 『동야휘집연구』, 보고사, 2005, p.32. 이 책의 서문에서는 "패관야승은 분전(墳典:三墳五典의 약칭으로 삼황오제의 書)에는 낄 수 없으므로, 진실로 문장가가 탐닉하여 볼 바가 아니다. 그러나 신기한 볼거리를 찾음은 역사책에서 빠뜨린 것을 갖추어 보충하고 담소의 이야깃거리를 제공하므로, 또한 문장가가 마당히 버릴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게 전개되었다. 국권침탈기 애국계몽 차원에서 문학의 역할을 논의한 논설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사례를 빈번히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매체가 『대한매일신보』이다. 이 신문 1908년 7월 7일 「근금 국문소설(近今國文小說) 저자의 주의」에서는 천하의 큰 사업이 을지문덕, 천개소문(泉蓋蘇文) 등과 같은 영웅에 의해 주조되지만 천하의 사업을 만들어 가는 자는 아녀자나 어린이, 일개 병졸의 도움을 받는 것이니 사회의 큰 흐름은 국문소설이 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논설은 그 당시 일부 중추원 지사가 시중에 판매되는 구소설의 유통을 금지할 것을 건의한 사실을 비판하기 위해 쓰인 것으로 비록 '위미음탕(萎靡淫湯)'한 소설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회 개조에 국문소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신문 1908년 7월 12일 「극계개량론(劇界改良論)」에서는 그 당시 협률사의 연극을 비판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 주조' 차원에서 연극이 역사보다 나음을 주장하고 '영웅호걸의 임리·장쾌(淋漓壯快)한 행적'과 '충신열사의 처량정렬(凄涼貞烈)한 유표(遺標)'를 나타내는 극계 개량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와 같은 논설에서 전제가 된 것은 민중 계몽을 위한 역사의식이며, 이를 고취하기 위해 소설과 극이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시기 '소설'과 '극'이라는 개념이 현대와 같은 문학 개념어로 쓰였는지는 좀 더 정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으나, 애국계몽가들의 문학관이 역사의식 고취를 가장 중시했음은 다음 논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一國의 風俗을 改良코져 홀진ᄃᆡ 近世의 閱覽ᄒᆞᄂᆞᆫ 小說과 近日에 演劇ᄒᆞᄂᆞᆫ 戱臺를 必先改良이니 何者오 小說과 戱臺가 不甚與世輕重이로ᄃᆡ 其源을 語ᄒᆞ면 街士坊客의 無聊不平ᄒᆞᆫ 著述이오 倡夫舞女의 俳優嬉笑ᄒᆞᄂᆞᆫ 資料ㅣ니 大人雅士의 掛齒煩目ᄒᆞᆯ ᄇᆡ 아니나 其流를 究ᄒᆞ면

> 個人의 腦髓에 浹洽ᄒᆞ고 社會의 風氣에 薰染ᄒᆞ야 心志를 蠱惑ᄒᆞ고 情性을 盪移ᄒᆞ야 不可思議의 효力이 有ᄒᆞᆫ지라. (中略) 아韓國은 小說과 戱臺의 資料가 不乏이로ᄃᆡ 雄偉活潑ᄒᆞᆫ 氣像은 絶無ᄒᆞ고 荒淫恠僻ᄒᆞᆫ 慣習만 滋長케 ᄒᆞ니 人心의 淆漓와 民性의 困瘁가 未或不由於此ㅣ라 故로 風俗을 改良코져ᄒᆞᆯ진ᄃᆡ 小說과 戱臺를 必先改良이라 ᄒᆞ노라.[11]

이 논설에서는 소설과 희대(연극)의 근원이 가사방객(街士坊客)의 무료불평한 저술이자 창부무녀(倡夫舞女)의 배우희소(俳優嬉笑)의 자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개인의 뇌수(腦髓)에 두루 미치고 사회 풍기를 물들이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큰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황음괴벽(荒淫恠僻)한 내용을 버리고 웅위 활발(雄偉活潑)한 기상을 담아 풍속을 개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웅위 활발한 기상은 당연히 역사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역사소설·역사극을 의미한다.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역사와 문학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다차원적으로 전개된다. 특히 1920년대에는 '역사극(歷史劇)', '역사소설(歷史小說)' 등의 용어가 문학 용어로 쓰이기 시작하는데, 『조선일보』 1921년 1월 26일자 「현당극담(玄堂劇談)」[12]에서 극연구가 현철(玄哲)은 연극의 교화 기능과 관련하여 "역사극을 보고 역사의 지식을 배운다든지 고인의 전기극을 보고 그 사람의 행적을 안다고 하는 것"을 예시하여 '역사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 신문 1924년 11월 24일자 '노벨상을 받은 레이몬트'와 관련된 기사에서는 폴란드의 작가 레이몬트의 『농민』이라는 소설과 관련하여 "사부작(四部作) 『농민』은 제18세기의 파란(波蘭) 분할 이후의 역사를 취급한 소설인데 레이몬트의 노작으로는 이 외에도 십여종이 잇스나 이 『농민』으로써 즉, 역사소설로써 그는 이름을

---

11) 대한매일신보, 「小說과 戱臺가 風俗에 有關」, 『대한매일신보』, 1910.7.20.
12) 조선일보, 「玄堂劇談-演劇과 敎化」, 『조선일보』, 1921.1.26.

썰치게 되었다."[13]라고 서술하였다. 이처럼 1920년대 빈번히 사용된 '역사극', '역사소설'이라는 용어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제재로 한 극과 소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시기에 이르러 역사와 문학의 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1920년대 역사와 문학의 관계가 주목된 데에는 식민시대 역사교육의 부재나 일본 관학자들의 역사왜곡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존재했다. 일제강점기 역사교육은 강제병합 직후부터 조선사를 배제하거나 일본사에 부속시켜 극히 일부만 포함시켰고, 이 상황은 3.1운동 이후 개정된 '신교육령' 체제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14] 이와 같은 사정은 『동아일보』 1921년 3월 2일~3일자 「역사교육에 대하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歷史에 對하야 定義를 下하되 或者는 "偉人의 傳記라" 하며 或者는 "民衆生活의 記錄이라" 하며 或者는 "進化的 民衆生活의 記錄이라" 하며 或者는 "階級鬪爭의 記錄이라" 하야 그 歸一할 바를 아지 못하나 그러나 要컨대 歷史는 '目的的 觀念'으로 觀察하면 人類 解放運動의 記錄이오, 現實的 立地로서 論之하면 民衆生活의 記錄이라.(中略) 日韓併合後 在來 總督 政治下에 在하야는 普通學校에서는 全然히 朝鮮歷史의 科目을 除外하야 敎授치 아니하고 中等 程度 學校에서는 或 日本歷史와 併合하야 그 部分으로써 此를 敎授하되 極히 制限된 範圍內에서 行하얏스니 此에 對한 理由와 事情은 勿論 許多할지오 더욱히

13) 조선일보, 「노벨賞을 바든 레이몬트」, 『조선일보』, 1924.11.24.

14) 일제강점기 1911년 발포된 '조선교육령' 체제에서는 '보통학교'의 경우 '역사' 교과목이 없고,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하교'에서는 '본방역사(本邦歷史)와 외국역사(外國歷史)'를 합친 '역사' 과목을 두었으나, '본방역사'는 일본의 국체(國體)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사였다. 1922년 발포된 '신교육령' 하에서는 '보통학교'에 '일본역사'라는 과목이 들어 있는데, 그 속에 "朝鮮의 變遷에 關한 史蹟의 大要도 知케 홈이 可홈"이라고 명시하였다. 이는 '역사'로 명명된 '고등보통학교'나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경우도 비슷하다.

> 舊韓國時代의 無知沒覺한 所以와는 그 趣 大히 殊異할지라. 或 學年은 短少하고 學科는 大多함으로 然하엿슬지며 或 日本人과 朝鮮人의 感情이 衝突될가 念慮함으로 然하앗슬지라.[15]

이 논설에서 주목할 점은 역사와 관련한 그 당시 지식인들의 인식이다. 즉 '위인의 전기', '진화적 민중생활의 기록', '계급투쟁의 기록' 등은 역사를 연구하는 관점에 따른 표현이지만 역사 자체는 민중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설에서는 '역사와 정치를 구분하고', '조선사는 조선사대로 한 과목을 설정하며', '동서양사를 혼합하지 말고' 가르칠 것을 주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이 식민시대 교육 당국자들에게 수용될 리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일제는 1925년부터 조선사편수회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조선사 집필에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조선사에 대한 왜곡이 심하게 이루어졌다.[16]

이와 같은 시대 상황에서 문학을 통한 역사의식 고취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비등해진다. 예를 들어 이광수는 「문예쇄담」에서 '신문예의 가치'를 논하면서 "옛날 조선에서 충효열(忠孝烈)의 윤리적 사상과 복선화음(福善禍淫)의 종교적 사상을 일반 인민에게 침윤(浸潤)시키는 데 큰 세력을 가진 것이 이야기책"[17]이라고 규정한 바 있고, 정태연(鄭泰淵)은 「조선을 무시하는가」라는 평론에서 우리의 문예운동사가 "조선인된 우리의 개성을 망각하고, '망아적(忘

15) 동아일보, 「歷史敎育에 對하야」, 『동아일보』, 1921.3.2.~3.3.

16) 예를 들어, 『동아일보』 1925년 10월 21일~22일자 논설 「아사인수(我史人 修)의 애(哀)」를 참고할 수 있다. 이 논설에서는 역사가 '강자', '권력자', '승리자'의 전유물이 된 사실과 '조선과 일본의 민족적 갈등의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었는가를 통탄하고 있는데 '신공후(神功后)의 삼한 정복설', '와케노키요마로(和氣淸麿)의 백제 정복설', '일본 전국시대 우키다(宇喜多) 가문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지마다카노리(兒島高德)' 등을 대표적인 왜곡 사례로 들고 있다.

17) 長白山人, 「文藝瑣談-新文藝의 價値」(4), 『동아일보』, 1925.11.5. .

我的) 호기심으로 남의 것을 모방한다."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조선인된 우리의 정신(조선혼)을 어디까지든지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18]

이처럼 일제강점기 역사의식 고취 차원에서 문학적 대응이 이루어지면서 '조선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전설 채집'이나[19] '사화와 야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20], 1927년 조선야담사가 조직된 직후 김진구(金振九), 윤백남(尹白南) 등에 의해 '민중교화운동'으로서의 '야담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21] 즉, '전설', '사화', '야담' 등은 문학을 통한 역사의식 고취를 목표로 활성화된 것으로, 이 시기 역사와 문학의 관계뿐만 아니라 역사적 제재를 대상으로 한 문학의 특징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배경이 된 것이다.

2.2. 1930년대 역사문학론의 본질

한국문학사에서 역사와 문학의 오랜 관계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학이라는 용어가 쓰인 것은 193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시기 역사문학론은 『조선일보』 1937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연재된 한식(韓植)의 「문학상의 역사적 제재」와 『동아일보』 1937년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연재된

18) 鄭泰淵, 「朝鮮을 無視하는가」, 『동아일보』, 1926.11.10.~14.

19) 김경남, 「일제 강점기 조선학과 민족학의 지식 지형에 따른 전설 채집 활동의 의미 – 『동아일보』 '전설의 조선' 연재물을 중심으로 –」, 『동방학』 41,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9, pp.149-184. 또한 조선일보사에서도 1926년 12월부터 사고(社告)로 '취미와 실익 본위의 4종 문헌 대모집'을 실시했는데, 그 가운데 전설이 포함되어 있다.

20) 1920~30년대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는 역사문헌을 전거로 한 〈사상으로 로만스〉, 〈사상의 현부인〉, 〈사상의 안해〉 등과 같은 다수의 사화(史話) 독서물이 연재되었다.

21) 이동월, 「1920년대 후반 야담운동 연구」, 『한국말글학』23, pp.257-325.

「역사문학 재인식의 필요」 등이다. 「문학상의 역사적 제재」에서 한식은 역사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역사와 문학과의 결합 등 광의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역사적 테마를 취재(取材)하면 과거의 사실 가운데 작품의 모티프를 구하는 의미[22]"로 역사문학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 이론을 제기한 것은 그 당시 창작 기법으로서 '리얼리즘'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역사적 제재를 중심으로 한 문학의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즉, 리얼리즘을 구현하는 입장에서 '보고문학(報告文學)'과 '역사문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역사문학은 '과거의 인물과 사건을 선택하고 취급'하는 데 필요한 예민한 판단력과 역사관, 작가의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문학 재인식의 필요」에서는 당시의 역사문학이 미숙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우리 文壇의 現在와 같은 狀態로서의 **未熟한 原因의 하나는 다음과 같은** 데서도 發生한다고 볼 수가 잇다. 그것은 近代的 小說의 地盤도 없고 또 民族문학으로서의 確立한 基礎도 없는 데다가 文人들의 太半이 確固한 歷史觀의 樹立이 없고 다른 땅의 여러 가지 文學과 潮流를 吸取하여 同化할 만한 豐裕한 **主體的 條件을** 못 가진 것이다. 그리하야 一時의 한 傾向的 或은 皮相的 레얼리슴의 붓대를 휘둘으면서 文壇에 進出한 結果로써 **쩌-나리슴으로부터 여러** 가지 비위에 맡는 作品을 請託받음으로써 그 生産에 忽忙하여지는 것이니 그 當然한 結果로써 素材가 極盡하며 모-팁의 劃一化를 招來하며 테마의 되푸리가 發生하는 것이다. 또 **文學藝術의 貧窮化, 로만的 構成의 缺乏 等의 缺陷으로써 드디어 今日에 잇어서 보는 것과 같은 個人的, 非社會的의 隨筆化의** 傾向에 떨어지며 **身邊雜記의 巧妙한 延長**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23]

---

22) 한식, 「문학상의 역사적 제재」(1), 『조선일보』, 1937.8.29.
23) 한식, 「역사문학 재인식의 필요」(2), 『동아일보』, 1937.10.5.

여기서 그가 말한 '주체적 조건'은 근대적 소설 발달의 지반과 민족문학 확립 과정, 역사관의 부족과 다양한 문학의 수용 능력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한 것이며, '수필화', '신변잡기화'는 역사를 제재로 한 문학 양식상의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역사와 문학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전제로 한다.

엄밀히 말하면 이 문제는 1930년대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비록 논의 대상은 다르지만 역사와 문학의 관계는 『동아일보』에 실렸던 양건식(梁建植)의 「홍루몽 시비(紅樓夢 是非」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홍루몽 시비」에서는 소설은 '사람의 삶을 그려내는 문제'(善寫人情)를 중시하는 데 비해 역사는 '예전의 일을 잘 서술하는 문제'(善述故事)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주장한다.[24] 다만 전통적인 패관문학의 경우 양자의 구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중국문학에서 『홍루몽』도 이와 같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역사문학이라는 범주를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선행 연구에서도 역사소설이나 역사극의 개념과 특징을 규정할 때, 제재의 차원과 역사의식 두 가지를 전제로 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역사소설에 대한 사적 고찰을 대상으로 한 홍성암의 연구에서는 역사소설을 '소재로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이 취급되어야 하고, 역사적 사실은 역사의 변천에 원동력이 되는 전형적인 작품', '소설로서의 구성 요건을 구비한 것', '역사의식이 존재하며, 나름대로 특수한 양식과 구조를 갖는 작품'이라고 정의한다.[25] 이러한 정의는 이승윤의 논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한국의 역사소설이 근대정신의 산물이자 근대 리얼리즘 소설의 성숙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1920년대 사회·역사

24) 양건식, 「紅樓夢 是非」(1), 『동아일보』, 1926.7.20.
25) 홍성암, 「歷史小說의 史的 考察-形成過程을 中心으로」, 『한양어문연구』4, 한양어문학회, 1986, pp.167-221.

적 배경을 바탕으로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진술한다.[26] 이에 따르면 근대계몽기 등장한 다수의 역사담이나 위인전 등은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소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근대계몽기의 역사·전기소설은 문학 장르로서 소설 개념이 정립되고, 창작 방법에서 리얼리즘론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엄밀한 의미의 역사소설로 규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 홍성암이나 이승윤 등의 논지에 따르자면 역사소설은 '역사적 제재'와 '소설로서의 형식'이 모두 구비된 것을[27]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개념 규정은 역사극에 대한 김기봉의 논의와도 비슷하다. 그는 루카치의 『역사소설론』을 전제로, 텍스트의 역사성과 역사의 텍스트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검토하면서 "역사극이란 과거의 인물과 사건, 중심이 되는 갈등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무대에 올린 연극의 총칭"이라고 정의하면서도, 이 정의에 내포된 '과거의 개념', '설화와 민담을 소재로 한 작품을 역사극으로 볼 것인지', '역사적 상상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등의 문제를 분석하려 했다.[28] 이러한 문제는 역사와 소설과 마찬가지로 장르가 명료한 연극 분야에서 역사와 연극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쉽게 결론을 맺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역사소설이나 역사극과 같이 장르가 비교적 명료할 경우, 역사와 문학의 관계를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인식할 경우가 많다. 김기봉이 논의한 것처럼 '심청전', '춘향전' 등과 같이 실존

---

26) 이승윤, 「근대 역사담론의 형성과 소설적 수용 – 역사·전기소설과 딱지본 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15, 대중서사학회, 2006, pp.121-160.

27) 홍성암, 「한국 근대 역사소설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88; 이승윤,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형성과 전개 – 매체를 통한 역사담론의 생산과 근대적 역사소설 양식에 관한 통시적 고찰」, 연세대 박사논문, 2006.

28) 김기봉, 「역사극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신역사주의적 해석 – 1970~80년대 "한국적" 역사극의 탄생과 연관하여」, 『드라마연구』34, 한국드라마학회, 2011, pp.1-20.

인물이 아닌 판소리계 소설을 각색하여 상연할 경우, 그것을 역사극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매우 복잡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29] 엄밀히 말하면 선행 연구에서 이러한 작품을 역사소설의 범주에 넣는 연구자도 찾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품은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형상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역사와 동화를 결합한 '역사동화'에 대한 논의도 비슷하다. 예를 들어 유정월은 『어린이』 잡지 소재 차상찬의 작품 46종을 분석하면서 그가 취한 원전 각색 태도를 주요 분석 대상의 하나로 삼았다. 즉, 차상찬의 경우 역사서의 인물 특성, 사건의 종류, 사건 발생순서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30] 이와 같은 접근은 역사문학의 각 장르에서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변용의 거리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 문제는 후대 창작된 역사동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검은바다』(문영숙, 문학동네, 2010)를 대상으로 한 장영미의 논의[31]나 『마사코의 질문』(손연자, 1999, 푸른책들), 『제암리를 아십니까』(장경선, 2007, 푸른책들), 『검은바다-강제징용자의 눈물』(문영숙, 2010, 문학동네) 등과 같이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창작된 동화를 대상으로 한 김태호의 평론[32] 등에서 창작동화의 역사적 상상력과 교훈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즉 역사문학론의 본질은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

29) 김기봉, 「역사극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신역사주의적 해석 - 1970~80년대 "한국적" 역사극의 탄생과 연관하여」, 『드라마연구』34, 한국드라마학회, 2011, pp.1-20.

30) 유정월, 「『어린이』 소재 차상찬 역사동화 연구 - 자료와 서술방식을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11-1, 한국리터러시학회, 2020, pp.353-383.

31) 장영미, 「역사동화를 통해 본 조선인 강제동원 참상과 제국주의의 폭력」, 『아동문학연구』27, 한국아동문학학회, 2014, pp.117-142.

32) 김태호, 「일제강점기 역사동화」, 『아동문학평론』44, 아동문학평론사, 2019, pp.33-39.

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으며, 또한 결합되어야 바람직한가의 문제를 의미하는 셈이다. 이 결합의 범위와 한계는 문학과 역사의 차이를 인식하는 중요한 근거로 1930년대 역사문학론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이병기(李秉岐)는 「역사문학과 정사」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논한다.

> **歷史小說은 文學이오 歷史는 아니다. 史實대로가 아니다. 歷史의 事件이나 人物을 말한 說話보다도 獨創的인 한 作品이다. 그러므로 史料를 쓰기는 하되 藝術的 效果를 나타내기 위하여서는 史實의 拘束을 받지 안는다.** 가령 『演義三國志』에 적힌 諸葛亮은 '長於治平 短於用兵'이라 하는 正史의 評과 다르고 『戰爭과 平和』에 나타난 拿破崙은 西洋史의 記事와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史實이 아니라 하여 排斥할 것이 아니다. (中略) 그런데 이 近來 우리 歷史小說 가운데에는 거짓을 적어노흔 것이 더러 잇다. 첫 張부터 몇몇 張을 넘기어 벌서 거짓이 보이게 된다. 읽어보자던 期待와 情熱은 갑자기 슬어지고 만다. 當初 西遊記같은 架空的 小說이고 보면 그건 그대로 믿을 수 잇지마는 歷史的 現實生活을 떠날 수 없는 이 小說에 잇어 얼토당토 안흔 어름어름하는 수작을 늘어노핫다면 作文帳도 아니고 作文 先生도 아닌 바에야 눈을 짜푸리고 보아줄 수 없다. 말하자면 黃眞伊가 뾰족구두를 신고 핸드빽을 들엇다든가 許生이가 洋服을 입고 自動車를 타고 다니엇다든가 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런 일이 거짓인지도 모르고 보는 이들이 잇다면 혹시 歡迎을 받을지 모르겟다. 萬若 이런 일들을 奇話로 삼고 가장 作家인 양하고 뽐낸다 하면 그는 小說을 짓는 이보다 罪惡을 짓는 이다. 그런 作家는 크게 反省을 하지 안흐면 아니될 것이다. 과연 歷史小說이 歷史의 史實보다 그 作品에 充實해야 할 것은 다시 말할 것이 없다.[33]

이 인용문에서는 '역사소설'이 예술적 효과를 위해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독창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역사적 현

33) 이병기, 「歷史文學과 正史」(하), 『동아일보』, 1939.3.30.

실생활'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병기가 예시한 황진이와 허생의 사례는 실제 작품에서 찾을 수 없는 극단적 사례이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문학에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한다. 즉, 역사문학의 '역사적 진실성'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되 그 자체가 사실이나 역사의식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3. 역사문학 양식으로서의 사화와 야담, 역사소설

3.1. 역사문학으로서의 사화와 야담

일제강점기 역사적 제재를 대상으로 한 전기, 사화, 야담류가 급증하고 역사소설이라는 서사양식이 활성화되면서 1930년대에는 본격적인 역사문학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역사문학 논의가 본격화된 데에는 사화나 야담 등이 역사의 대중화와 역사의식 고취라는 본래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문학적 구성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식의 「역사문학 재인식의 필요」에서도 이와 같은 시대 상황을 엿볼 수 있다.

> 勿論 그러타 하야 모든 民衆이 한결같이 그러한 態度로서만 우리의 古典을 待望하며 또 모든 讀者가 일제히 相當한 歷史的 自覺을 促進하는 意味에서 歷史文學을 愛讀하는 것은 아니다. 復古的의 탈을 빼서 못나며 英雄의 神奇譚에 로맨틱한 空想을 滿足하며 刺戟 바들여하는 만흔 讀者도 잇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部分이 잇고 또 그 한 憂慮가 **所謂 野談 大衆小說 등으로써 培養되고 잇으**면 잇을수록 우리들 進步的 文學者들은 그에 對한 積極的이고 意識的인 努力을 다하여야 하지 안흘가 한다. (중략) 文學者의 筆力이 얼마나 그 民族의 歷史的

> 人物과 業績을 생생하게 後世에까지 남겨주는가 하는 것은 놀낼 만한 일이다. 그런 것을 잘 알메도 不拘하고 또 今日에 잇어서의 **우리의 歷史는 大槪 所謂 大衆小說, 野談 등의 作家에 依하야 奇譚化하며 歪曲되고 잇는 때를 當하야** 우리들 作家들이 그것들을 다만 拱手 傍觀하야 그대로 放置하고 잇으며 따라 民衆의 如此한 待望에 對答하지 못하고 잇는 지극히 遺憾한 現狀을 볼 수가 잇다. 勿論 若干의 **良心的 레얼리스트의 손으로 된 歷史小說도 없지는 안타**. 그 中에도 李光洙氏의 諸作 年前으로부터 本報에 連載된 『麻衣太子』, 『端宗哀史』, 『李舜臣』과 『異次頓의 死』에 이르기까지 가장 빛나는 歷史小說를 創作하여 왓든 것은 斯道의 先覺者답은 일이라고 하겟다.[34]

이 논의에 따르면 이 시기 역사문학 작품의 심각한 문제는 역사에 대한 '기담화'와 '왜곡'이며, 그것을 주도하는 서사양식은 '야담'과 '대중소설'이다. 즉, 야담과 대중소설에서 '영웅의 기담화에 로맨틱한 공상'이 가미된다는 것이다.

야담은 본래 민간전승의 옛날이야기를 뜻하는 말이었다. 특히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한 옛날이야기라는 점에서 야담은 패관문학이나 야사(野史)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만 1920년대 후반 등장했던 '사화(史話)'와 야담운동은 '역사의 대중화'와 '민중교화' 차원에서 변형된 역사문학의 새로운 조류로 해석할 수 있다.[35] 그러나 이 시기 사화와 야담, 역사소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그 한 예로 1938년 『매일신보』에 실렸던 김동인(金東仁)의 글을 살펴보자.

---

34) 한식, 「역사문학 재인식의 필요」(4), 『동아일보』, 1937.10.7.

35) 김경남, 「사화(史話)의 서사문학으로서의 의미 - 『사천년역사국조선사화(四 千年曆史國朝鮮史話)』와 『사천년문헌통고(四千年文獻通考)』를 중심으로 -」, 『한민족문화연구』22, 한민족문화학회, 2007, pp.107-128; 신상필, 「야담의 근대적 전환과 대중문화로서의 기획」, 『동남어문논집』45, 동남어문학회, 2018, pp.77-104.

野談이란 名詞를 누가 發明하였는지 모른다. 野史談이라는 것을 短縮시켜서 이 名句를 만들어낸 것이다. 지금 俗稱 野談이라 하는 것에는 左의 部類의 적지 않은 種類가 包含되어 있다.

一曰 歷史小說, 즉 歷史에서 取材를 하여 創作한 小說

二曰 歷史譚, 즉 歷史에서 한 토막 이야기가 될 만한 거리를 붙들어서 양념을 좀 加하여 이야기로 化하는 것

三曰 古談, 즉 歷史라는 것은 政治的인 움직임이 加味되어야 하는 것인데 단지 옛날부터 傳해 내려오는 재미있는 事實譚을 한 토막 만들어서 재미있게 듣기우거나 읽히우는 것

四曰 無限의 創作說이라도 좋으니 단지 條件은 登場人物이 상투장이고 이야기가 그럴 듯이 재미있는 者 (中略) 대체적으로 野字는 운치있는 경우를 除한 外에는 좋지 않은 方面에 많이 쓰인다. 野卑, 野合, 野陋, 野心, 野人, 野蠻, 野熊 - 일일이 指摘할 수 없으리만큼 野字는 그리 좋지 못한 데 쓰인다. 따라서 野談이라 命名한 분의 뜻은 野史談이라는 뜻으로 하였겠지만 얼른 듣는 이에게는 野卑談과 같은 印象을 준다.(생략)[36]

김동인은 '야담'을 '야사담(野史譚)'의 준말로 인식하고 있다. 이때 등장하는 '야사담'은 역사이야기라는 뜻에서 '사담' 또는 '사화'와 같은 뜻을 갖는다. 즉 김동인은 사화와 야담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았으나, 그 자신도 '역사소설', '역사담', '고담' 등의 유형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양식상의 차이를 고려할 때, 역사문학 내에서도 사화와 야담은 다소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1920~30년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사화'임을 천명한 다수의 연재물[37]은 역사상의 인물을

36) 김동인, 「野談이란 것」, 『매일신보』, 1938.1.22.(삼중당 출판부, 『김동인전집』6, 삼중당, 1976, p.602.)

37) 『동아일보』에 실렸던 이은상의 〈사상의 로만스〉(총162회, 1929.10.1. - 1930.4.16.), 〈어린이 조선〉(총22회, 1931.1.1.-2.7), 『조선일보』에 실렸던 소헌의 〈사상의 현부인〉(총7회. 1933.6.26.-7.22.), 〈사상의 안해〉(총9회, 1933.10.24.-11.2.) 등을 들 수 있다.

제재로 문헌을 인증하여 짧은 이야기 형태로 구현한 독서물인데 비해 '야담'임을 천명한 작품들은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구연자(口演者)를 내세워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38] 이와 같은 양식의 차이는 잡지『어린이』에 수록된 차상찬의 역사문학 작품들에서도 확인되는데, 그는 〈24세에 대금 황제가 되었던 소년 장군 이징옥〉, 〈천하용장 을지문덕 장군〉등과 같은 이야기에는 '사화' 또는 '사담'이라는 표제를 붙였고, 〈감옥에서 동화'(고 방정환 선생 추모 기념)〉에는 '일화', 〈신라명장 김유신〉, 〈저두정승 장순손〉, 〈맹고불맹정승〉 등에는 '역사동화'라는 표제를 붙였다.[39] 또한 대중 독자를 대상으로 한『월간야담』에서도 표제에 '사담', '기담(奇談)', '야화(夜話)', '애화(哀話)' 등의 표제를 붙일 경우가 많았다.[40] 이와 같은 표제는 이야기의 성격이나 정서를 반영하여 붙인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사화가 문헌 고증이나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데 비해 야담은 대중의 흥미를 고려한 이야기 구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1930년대 사화와 야담은 대표적인 역사문학 서사양식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역사문학론에서는 한식의 평론과 같이, 사화와 야담을 구분하지 않고 야담이 역사적 사실을 기담화하여 왜곡하거나 오락화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이 점은 김동인의 연재물 〈운현궁의 봄〉에서도 확인된다.『조선일보』

38) 강미정,「야담문학의 전통과 변형 그리고 한계」,『영주어문』49, 영주어문학회, 2021, pp.209-238.

39) 유정월, 앞의 논문, 2020, pp.357-359. 이 논문에서는 이들 작품을 모두 '역사동화'로 규정하였다. 이는 대상독자가 어린이라는 점을 고려한 용어이나, 엄밀히는 '동화'와 '사화'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40) 예를 들어『월간야담』제1권 제2호(1936.12.)의 경우 신정언이 지은 '泗沘城上에 어린 香魂'에는 '백제사담(百濟史談)'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고, 사운거사(沙雲居士)의 '슬긔(智略)'에는 '기담(奇談)'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 다만 이 잡지에 수록된 사화나 기담, 또는 야화(夜話) 등에는 구연자를 대신한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933년 4월 26일부터 1934년 2월 17일까지 197회에 걸쳐 연재된 이 작품은, 연재 초기에는 '야사(野史)' 또는 '사화(史話)'라는 표제를 사용하였다. 즉, 이 이야기가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전제로 창작되었다는 뜻이다. 연재 중반부터는 표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작자의 후기에서는 스스로 이 작품을 '사화'라고 지칭하였다.

> 본시 이 사화(史話)는 세편에 나누어서 그 상편은 철종 말년에서 시작하여 고종 등극까지로 막고, 중편은 대원군 섭정의 十년간의 변화 만흔 동태를 그리고, 하편은 대원군의 은퇴와 민중전의 득세로부터 고종의 선위(禪位)까지를 쓰랴든 것이다.(中略) 조선의 사서(史書)에는 연월일이 미상한 것이 이런 사화를 쓰는 사람에게는 매우 불편하다. 비교적 연월일이 상세히 적힌 『국조보감』류는 그 대신 직접 대궐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긔록하지를 안코, 대궐에 관계되는 일에도 곡필(曲筆)이 만타. 그런지라 당시의 일을 상세히 알기는 지난의 일이다. 고로(故老)들의 말도 또한 몽롱한 긔억에 의지함이라 신빙키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서 지금껏 쓴 것은 그 제도 력사상 사실 풍속 습관 모도 그다지 큰 틀림은 업스리라고 자신할 수 잇는 범위 안에서 쓴 배니깐 그러케 알어 주시기를 바란다.[41]

주지하다시피 〈운현궁의 봄〉은 흥선대원군의 파란만장한 삶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세도정치의 문란, 서원의 병폐, 매관매직 등 당대의 현실을 '상가집 개'처럼 살면서 자신의 뜻을 펴기까지의 과정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김동인은 역사적 현실을 재현하기 위해 다수의 사료를 참고했으며, '풍속, 습관' 등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 힘썼음을 피력한 것이다.

---

41) 금동, 「雲峴宮의 봄-十六의 四」, 『조선일보』 1934.2.17. 작가의 후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김동인전집』6, 삼중당(1976)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단행본에는 수록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이 작품의 서사와 관련이 없는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이 작품을 '역사소설'로 인식하는 편집자들이 이 글에 나타난 '사화'라는 설명을 굳이 수록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사실(史實)과 문학의 관계'는 사화와 야담 작가들이 가장 고민했던 문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동인의 경우 〈운현궁의 봄〉 이전에, 『동아일보』 1930년 9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젊은그들〉을 연재한 바 있다. 그 당시 동아일보사의 「신연재소설(新連載小說) 예고」 기사에서는 이 작품이 "대원군 시대의 젊은 사람들의 모험적 호기심과 연애를 배경으로 당시의 사회상과 정치적 문란을 그려내려는 것"이자 "작자는 이 역사적 시대를 그림에 있어 사건과 인물을 사실(史實)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 안출하리라 합니다."라고 예고하였다.[42] 즉, 소설은 사실 그 자체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에 따라 변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김동인은 『동아일보』 1932년 3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136회에 걸쳐 〈아기네〉라는 제목의 사화를 연재하였으며, 8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떠오르는 해〉, 〈형과 아우〉, 〈빛나는 우물〉, 〈말탄 온달〉 등과 같은 사화를 지속적으로 연재하였다. 주목할 점은 이 사화들의 서술 방식인데, 〈아기네〉의 경우 시작하는 부분에서 "일환아, 아버지는 지금 너를 위하야 이 붓을 잡는다."와 같이, 작가가 자녀들을 독자로 설정하여 이야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방식은 1927년 야담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구연자를 전제로 한 야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즉 김동인의 경우 형식과 내용 차원에서 야담과 사화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김동인은 1936년 『야담』 잡지를 창간·운영하기도 했는데[43], 사화와 야담을 구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소설에서도 사실(史實)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의 형상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인은 '역사와 사실(事實)

42) 동아일보, 「신연재소설 예고 – 젊은그들」, 『동아일보』, 1930.4.16.

43) 신상필, 「김동인의 『야담』 잡지를 통해 본 근대 야담의 서사기획」, 『한민족문화연구』57, 한민족문화학회, 2017, pp.245-275.

과 판단과 사료(史料)에 대한 작자의 입장을 논함'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며칠 전 몇몇 친구가 어떤 정자에 모여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화제가 우연히 '歷史上 事實의 事實的인 面과 그 判斷的인 面'에 及하였다. 그리고 그 예로서 春園의 '端宗哀史'와 필자의 단편 사담 '首陽大君'이 화제에 올랐다. (중략) 春園의 '端宗哀史'는 옛날의 史書에 나타난 事實과 判斷을 보고 그냥 답습하여 現代語로 고쳐놓은 데 불과하다. 거기는 春園의 判斷이 없고 春園의 主觀이 없다. 여기서 사실과 판단과의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다. 옛날의 기록을 보아서 모순성을 발견할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판단력으로써 이 모순성을 제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44]

이 글에서도 김동인은 자신이 쓴 〈대수양〉을 역사소설로 규정하지 않고, '사담'이라고 지칭한다. 그러면서도 역사 기록의 모순성에 대한 작가의 판단력이 중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노산군을 사사해야 하는 수양대군의 고뇌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정당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김동인과 같이, 사화와 야담, 역사소설 등의 범주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사실과 역사'의 관계에서 작가의 역사의식과 주체적 판단이 필요하되, 문학이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역사문학론과 작가들이 공유했던 의식으로 볼 수 있다.

3.2. 사화와 야담, 역사소설의 거리

역사문학의 서사양식으로서 사화와 야담, 역사소설은 문헌 인증

---

44) 김동인, 「歷史와 事實과 判斷과 史料에 對한 作者의 立場을 論함」, 『조선중앙일보』, 1934.10.14.~10.24.(삼중당출판부, 『김동인전집』6, 삼중당, 1976, p.172.)

의 태도나 이야기 형식, 형상화 가능성 등에서 일정한 구분이 필요하다.[45] 김동인의 경우 역사문학 서사양식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조선문단』 제7호~제10호(1925)에 연재한 그의 〈소설작법〉이나 〈젊은 그들〉, 〈운현궁의 봄〉, 〈아기네〉 등과 같은 작품에 나타나는 작가의식을 종합하면, 그가 사화와 소설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아기네〉의 경우 자녀를 가르치기 위한 입장에서 역사 이야기를 흥미 위주로 각색하고 있는데 비해, '소설작법'이나 역사소설로 불리는 연재물에서는 작품 구상과 문체 등 소설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46]

소설 양식의 특성과 창작 방법에 대한 논의는 1925년 중반 이후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로 송아 주요한(頌兒 朱耀翰)의 「문예통속강화」를 들 수 있다.[47] 이 연재물에서는 '감상과 비평'의 차이를 설명하고, 창작을 '즉흥적 창작', '기정적(寄情的) 창작', '사상적 창작' 등 세 종류로 나눈 뒤, 사물의 관찰과 감흥 및 정열과 사색이 융합된 사상적 창작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문학이라고 규정하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양식인 소설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는 소설의 네 가지 요소로 '곡절(曲折)', '인물', '배경', '주지(主旨)'를 제시했는데, 곡절은 일종의 '플롯'을 의미하며, '주지'는 '주제'에 해당한다. 즉, 주요한은 독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플롯이 존재해야 하며, 성격이 부여된 인물과 그 인물이 활동

45) 이 문제는 야담과 관련한 이강옥, 『한국 야담의 서사 세계』를 참고할 수 있다.

46) 김동인, 「소설작법(3)」, 『조선문단』제8호, 조선문단사, 1925. 이 글에서는 소설의 구상과 관련하여 '이야기 가음(플롯)을 만드러 가지고 거기 人物을 配置하는 것', '人物을 만드러 가지고 그런 性格의 사람이면 展開될 事件이나 局面을 發見하는 것', '엇던 雰圍氣를 붓드러가지고 그 雰圍氣에 마즐 만한 局面이며 人物을 만드러 내는 것'이 소설 구상의 세 가지 요건이라고 설명한다.

47) 송아, 「문예통속강화」(1)~(17), 『동아일보』 1925.12.31.-1926.2.25.

하는 시대·사회적 배경의 조화, 이상과 현실의 관계를 고려한 주제의 설정 등이 좋은 소설을 창작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주요한은 소설의 3대 기능을 '오락', '지식', '교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창작가는 '미와 감동을 발견하고', '시대의 선구가 되어야 하며', '인간만사의 진상을 해부하고 묘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김동인이나 주요한의 소설 창작 방법은 소설의 주제와 교훈적인 의미보다 소설이라는 서사양식이 갖추어야 할 양식상의 특징을 중시한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30년대 평론가들은 역사적 제재를 대상으로 한 사화와 야담은 그 자체로서 역사소설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고, 그것을 평론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지도 않았다.

1920년대 후반부터 국민문학파의 일원으로 비교적 활발한 평론 활동을 전개했던 정노풍(鄭蘆風)도 1935년 초 문예비평의 주요 대상이 소설이며, 비평의 준거가 '제재', '구성', '묘사'임을 표방하고 있다. 그는 소설은 제재 면에서 '조선 민족 사회의 진실상을 구현해야 하며', 구성에서 '직관을 벗어나 계급적 관점을 갖추어야' 하고, 그에 적합한 '묘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48] 이를 전제로 하면 역사문학의 비평 대상도 사화나 야담류보다 역사소설이 되어야 하며, 역사소설도 제재, 구성, 묘사 차원에서 일정한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된다.

정노풍은 김동인의 〈낙왕성추야담(落王城 秋夜譚)〉(『중앙』 1935.1.), 〈거인은 움즉인다〉(『개벽』 1935.1.) 등을 '역사소설'로 규정하면서 춘원의 역사소설과 마찬가지로 "왕권 체탈로 일어나는 권모술수의 기록이건 또는 궁중 탕왕의 방종한 음사 잡기(淫事雜記)건, 의절 고조(義絶高調)의 충군열사의 서사이건 조선서 산출되는 역사소설이라는 것이 일종의 궁중 정실기(情實記)를 벗어나지 못

48) 정노풍, 「最近文藝批評」(1), 『동아일보』, 1935.3.1.

하는 것은 한심한 노릇"이라고 일갈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김동인과 정노풍의 역사소설에 대한 인식이다. '낙왕성추야담'이라는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김동인은 '사화'나 '야사담'과 '역사소설'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논의한 '운현궁의 봄'의 표제 사용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평론가의 입장에서는 짧은 역사이야기에 불과한 사화나 야담류를 역사소설에 포함시키지 않는 셈이다.

이처럼 사화와 야담, 역사소설의 경계에 대한 인식은 작가와 평론가에 따라 다르고, 작가 스스로도 이들 양식을 구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역사 연구를 중시했던 문일평(文一平)[49], 김희상(金熙祥)[50] 등은 '창작'의 관점에서 사화를 쓴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상의 로만스〉, 〈어린이조선〉 등의 사화를 연재했던 이은상의 주된 관심사도 '역사의 대중화'에 있을 뿐, 그 자체로서 허구의 역사물을 창작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생각은 문헌 인증을 중시하는 사화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며, 그 자체로서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야담도 비슷하다. 야담운동에 가담했던 신정언이 "야담은 순연한 역사도 아니오, 민담도 아니오, 역사 중 한 종류가 되는 야사를 토대삼아 담화식으로 그 뜻을 설명한 것"[51]이라고 정의한 것처럼, 역사적 제재를 이야기로 각색함으로써 역사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야담이라고 믿고 있다.

---

49) 문일평, 『호암전집』, 조선일보사, 1939. 이 전집에는 '사상(史上)의 기인(奇人)', '근교 산악 사화(近郊山岳史話)', '사상(史上)에 나타난 꽃 이야기', '사상(史上)에 나타난 예술의 성직', '예술과 로맨쓰'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작품들은 모두 사화로 규정할 수 있다.

50) 김경남, 「사화(史話)의 서사문학으로서의 의미 - 『사천년역사국조선사화(四千年曆史國朝鮮史話)』와 『사천년문헌통고(四千年文獻通考)』를 중심으로 -」, 『한민족문화연구』22, 한민족문화학회, 2007, pp.107-128.

51) 신정언, 「포낭기-작자의 말」. 『동아일보』, 1936.4.30.

이러한 차원에서 사화와 야담, 역사소설은 역사적 제재라는 차원에서 동일한 역사문학의 범주에 놓여 있지만, 역사의 대중화에 대한 인식, 역사의식에 대한 작가의 태도, 소설 양식이 갖추어야 할 인물(성격 창조), 사건(플롯), 배경(역사적 진실성) 등의 적절성 등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즉 사화나 야담은 '인물의 성격 창조'나 '플롯의 긴밀성'과 같은 소설의 요소를 중시하지 않는 대신,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대중에게 쉽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을 중시하는 데 반해, 역사소설은 같은 역사적 제재일지라도 창작 방법을 동원한 형상화를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소설의 경우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상반된 관점이 등장할 수 있고[52], 작가 자신의 역사관 피력에도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다소 후대의 작품이지만 김동인은 장편 역사소설 〈서라벌〉[53]의 '전언(前言)'에서 "우리의 사는 이 거룩한 땅은 아득한 반만 년 전의 옛날, 우리의 성조(聖祖) 단군께서 세우신 나라이다.", "신라는 나중에 도리어 당나라의 앞잡이가 되어 당나라와 힘을 아울러 동방수호의 대국 고구려를 거꾸러트린 것이다."와 같이 자신의 역사관을 피력한다. 〈서라벌〉 '범례'에서 그는 이 소설을 '역사가 아닌 소설화된 이야기'라고 규정하고, "잃어버린 역사 기록, 잃어버린 풍습, 제도, 찾아낼 수 없는 강역 강계, 알아볼 바 없는 혈족, 계통-아주 박약하고 모호한 사료(史料)를 근거삼아 한 개 이야기"를 꾸민다고 서술한다. 그는 또한, 이야기의 목표한 바가 "옛날의 제도나 풍습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또는 소설 상 리얼의 형태를 알리고자 하는 바도 아니요, 그 사이 이천 년 간을 그릇된 관념 때문에 잘못 전해진, 또는 최근 몇 십 년간의 악의로 개조된

52) 예를 들어 이광수의 『단종애사』와 김동인의 『대수양』에 나타나는 단종과 수양의 인물 성격의 차이는 이를 증명한다.

53) 김동인, 『역사소설 서라벌』, 태극사, 1953; 삼중당 편집부, 『김동인전집』 2, 삼중당, 1976.

우리 선인의 걸어온 자취를 시정하여 우리의 후손에게 들려주자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홍기삼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역사소설은 역사와 문학에 모두 귀속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리얼리즘의 포기', '야담적 취향'만을 드러낸 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하다.[54] 흥미로운 것은 이와 같은 비평이 한식의 「역사문학 재인식의 필요」에도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는 "소위 야담류에 의해 어그러지게 해결되는 문학의 대중화 및 역사적 테마의 영역 확장에 반발함으로써 과거 역사 가운데 문학의 테마와 모티프를 구하여 우리 문학의 건실한 기초를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 역사 가운데 자랑과 상처를 리얼리스틱한 필력으로 반영하며 묘사할 때, 그 작품이 가치가 있으며, 그것을 통해 우리를 계몽할 수도 있고, 우리의 역사가 될 수도 있어야 가치 있는 역사문학"이라고 규정한다.[55] 이를 종합할 때, 역사문학론은 역사의식 고취와 역사 대중화라는 계몽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작품의 역사 귀속성과 문학적 형상화의 정도성에 따라 일정한 양식이 분화된 경향을 보인다.

대중성과 오락성을 근거로 한 야담 비판론은 역사적 제재의 형상화 차원에서 사화와 야담, 역사소설에 일정한 거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거리는 사료(史料)와 사실(史實)에 대한 태도, 작품의 길이나 구성 요소와 같은 형식적인 면 등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역사소설에 반영된 작가의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홍효민은 역사소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歷史小說이 한 개의 創作인 以上 創作 過程을 밟아야 한다. 小說이

54) 홍기삼, 「작품해설 - 신라중심주의의 극복」, 『김동인전집』2, 삼중당, 1976, pp.566-567.

55) 한식, 「역사문학 재인식의 필요」(완), 『동아일보』, 1937.10.7.

> 란 한 개의 建築이다. 作家는 우선 말을 고를 줄 알아야 비로소 創作過程에 들어간다. 말하자면 이것은 習作의 世界다. 小說이란 한 개의 藝術品이다. 決코 野談과 對比할 것은 아니다. 오늘날까지의 우리나라 歷史小說은 野談과 混同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 小說이 한 개의 創作過程을 지나서 그 構成이나 描寫 또는 그 表現이 그야말로 仙風道骨의 脫皮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것은 小說이요 同時에 藝術品이 된다고 할 수 있다.[56]

홍효민과 같이 역사소설이 야담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논리는 일제강점기로부터 광복 이후 문학평론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퍼져 있는 생각들이다. 그 근거는 '구성', '묘사', '표현'에서 소설은 야담과 달리 작가의 창작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와 같은 논리는 1930년대 역사문학론자들이 비판했던 역사의 기담화, 왜곡 현상이 야담에서 빈번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에 근거하며, 상당수 야담 작품이 이를 뒷받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후의 사화와 야담, 그리고 역사소설은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진실성', 즉 역사관과 문학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해 가는 과정에서 등장한 역사문학의 다양한 양식들이며, "역사문학은 역사에 귀속되기도 하고, 문학에 귀속되기도 한다."는 보편 명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음은 틀림없다.

4. 결론

문학에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제재로 한 다양한 작품이 생성되는 것은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

56) 홍효민, 「歷史小說의 文學的位置」(상), 『경향신문』, 1956.1.13.

다. 이러한 작품들은 근본적으로 '역사와 문학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 과제를 던져준다. 이 논문은 일제강점기 역사문학론의 형성 배경과 본질을 살펴보고, 이 시대 대표적인 역사문학 서사양식이었던 사화와 야담, 역사소설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출발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문학론은 역사와 문학의 관계를 전제로 하며, 역사적 제재를 어떻게 형상화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일제강점기 역사문학은 1920년대 역사교육의 부재와 민족의식 각성을 위한 역사의 대중화를 위한 차원에서 '전설', '사화', '야담'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이 시기부터 '역사소설'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1930년대에 이르러 이들 양식을 포괄한 '역사문학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둘째, 1930년대 역사문학론은 역사적 제재를 대상으로 한 문학작품을 뜻하는 개념으로 쓰였으며,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기담화', '왜곡'하는 현상을 비판하고 '역사적 진실'을 구현하는 작품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갖추고 있다. 이때 언급된 '역사적 진실'은 '사실(史實)' 그 자체가 아니라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역사적 현실생활'을 의미한다. 즉, 역사문학은 역사 자체는 아니지만 그 자체가 사실이나 역사의식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셋째, 역사문학론 전개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된 사화와 야담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화는 역사적 제재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 독서물을 의미하며, 야담은 민간전승의 이야기를 구연자를 전제로 각색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역사소설은 소설로서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김동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야사담', '야담', '역사소설'의 경계가 늘 명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사양식상 사화, 야담, 소설 등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역사문학의 범주에서 '사실과 역사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주체 의식이 필요하며, 문학이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은 역사문학론자나 작가들이 공유했던 의식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사화와 야담, 역사소설의 관계는 역사문학 서사양식에 대한 현실 인식의 문제일 뿐 아니라 역사문학이 지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소설은 '구성', '묘사', '표현'의 차원에서 작가의 형상화 과정을 거친 작품을 지칭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소설은 기담화, 오락화된 야담과는 달리 문학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후의 사화와 야담, 그리고 역사소설은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진실성', 즉 역사관과 문학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해 가는 과정에서 등장한 역사문학의 다양한 양식들이며, "역사문학은 역사에 귀속되기도 하고, 문학에 귀속되기도 한다."는 보편 명제를 벗어나지 않는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동아일보』
『조선일보』
삼중당 출판부, 『김동인전집』2, 삼중당, 1976.
삼중당 출판부, 『김동인전집』6, 삼중당, 1976.

2. 논문

강미정, 「『조선야사전집』의 취지와 구성 체제」, 『어문론총』73, 한국문학언어학회, 2017, pp.65-88.
강미정, 「야담문학의 전통과 변형 그리고 한계-1920~30년대 야담운동을 중심으로-」, 『영주어문』49, 영주어문학회, 2021, pp.209-238.
공임순,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장르론적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2000.
권영기, 「한일 근대 역사소설 비교 연구 - 초기 역사소설을 중심으로 -」, 동덕여대 박사논문, 2003.

권혁래, 「조선후기 역사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8.
김경남, 「사화(史話)의 서사문학으로서의 의미 – 『사천년역사국조선사화(四千年曆史國朝鮮史話)』와 『사천년문헌통고(四千年文獻通考)』를 중심으로 –」, 『한민족문화연구』22, 한민족문화학회, 2007, pp.107–128.
김경남, 「일제 강점기 조선학과 민족학의 지식 지형에 따른 전설 채집 활동의 의미 – 『동아일보』 '전설의 조선' 연재물을 중심으로 –」, 『동방학』41,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9, pp.149–184.
김경미, 「『젊은 그들』의 역사 내러티브 전략과 민족 담론의 양상」, 『한민족어문학』68, 한민족어문학회, 2014, pp. 543–579.
김기봉, 「역사극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신역사주의적 해석 – 1970~80년대 "한국적" 역사극의 탄생과 연관하여」, 『드라마연구』34, 한국드라마학회, 2011, pp.1–20.
김병길, 「한국 근대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기원과 계보」, 연세대 박사논문, 2006.
김지연, 「구활자본 역사영웅소설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2002.
김치홍,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사적 연구」, 명지대 박사논문, 1987.
김태호, 「일제강점기 역사동화」, 『아동문학평론』44, 아동문학평론사, 2019, pp. 33–39.
문철주, 「한국 근대 역사소설 연구」, 동아대 박사논문, 1993.
박종혼, 「일제강점기 한국 역사소설 연구 – 작가의 역사인식과 사실반영을 중심으로 –」, 경북대 박사논문, 1991.
손희주, 「郭沫若의 1940년대 歷史劇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5.
송백헌, 「한국 근대 역사소설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1982.
신상필, 「김동인의 『야담』 잡지를 통해 본 근대 야담의 서사기획」, 『한민족문화연구』57, 한민족문화학회, 2017, pp. 245–275.
신상필, 「야담의 근대적 전환과 대중문화로서의 기획」, 『동남어문논집』45, 동남어문학회, 2018, pp. 77–104.
신승호, 「일제강점기 구활자본 역사소설 연구 – 임진왜란 배경 작품을 중심으로 –」, 고려대 박사논문, 2021.
양근애, 「한국 역사극의 형성과 재현의 문화정치」, 서울대 박사논문, 2016.
유정월, 「『어린이』 소재 차상찬 역사동화 연구 – 자료와 서술방식을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11–1, 한국리터러시학회, 2020, pp. 353–383.
윤소영, 「그라베의 역사극에 나타난 역사인식」,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1.
이상우, 「원대 역사극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1998.
이승윤, 「근대 역사담론의 형성과 소설적 수용 – 역사·전기소설과 딱지본 소

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15, 대중서사학회, 2006, pp. 121–160.
이승윤,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형성과 전개 – 매체를 통한 역사담론의 생산과 근대적 역사소설 양식에 관한 통시적 고찰」, 연세대 박사논문, 2006.
이윤희, 「한국 역사동화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2003.
이재용, 「이광수와 김동인의 역사소설 연구」, 인하대 박사논문, 2013.
이재홍,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번역필사본 중국 역사소설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08.
이준영,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형성과 전개 – 매체를 통한 역사담론의 생산과 근대적 역사소설 양식에 관한 통시적 고찰」, 『영미문학연구』22–3, 한국영미문학교육학회, 2018, pp. 119–134.
이진형, 「일제 말기 '역사' 담론의 아포리아와 그 초극의 문제 – 임화와 김기림의 역사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15, 2014, 한국근대문학회, pp. 161–197.
임옥규, 「북한 역사소설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2005.
장영미, 「역사동화를 통해 본 조선인 강제동원 참상과 제국주의의 폭력」, 『아동문학연구』27, 한국아동문학학회, 2014, pp. 117–142.
전경운,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서사 특성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1996.
홍성암, 「歷史小說의 史的 考察–形成過程을 中心으로」, 『한양어문연구』4, 한양어문학회, 1986, pp. 167–221.
홍성암, 「한국 근대 역사소설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88.

(투고일: 2021.11.12 심사완료일: 2021.12.20 게재확정일: 2021.12.22)

강미정
소 속: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4길 42-5
전자우편: lala0816@smu.ac.kr

[Abstract]

The Distance between SAHWA(narrative of history), YADAM(folklore story), and Historical Novels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Literature in the 1930s

Kang, Mi-Jeong

This thesis started with the goal of examining the background and essence of the formation of historical literatur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istorical literatur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ppeared in various forms such as 'legend', 'SAHWA', 'YADAM' in the context of the absence of history education in the 1920s and the popularization of history for the awakening of national consciousness. In the 1930s, the theory of historical literature was used as a concept to mean literary works that were targeted at historical sanctions. has logic. The 'historical truth' mentioned at this time does not mean 'fact' itself, but 'historical real life' embodied in literature. In other words, historical literature is not history itself, but itself is based on the logic that facts or historical consciousness should not be distorted. However, even if the genre does not differentiate between SAHWA, YADAM and novels etc. In the category of historical literature, the author's sense of subjectivity is requir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s and history', and the notion that literature should not distort history is widely accepted by historical literature scholars and writers. It can be seen as a shared consciousness.

Key words: historical literature, SAHWA(narrative of history), YADAM (folklore story), historical novel, historical consciousness